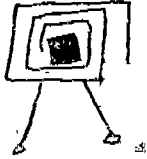


# 간호원의 수급계획



대한간호협회 총무  
윤 수 복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실로부터 수급계획을 듣기로 했는데 간호담당관실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간호협회로서의 간호원의 수급계획을 말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 바란다.

그동안 간호원의 수급계획은 행정당국의 계획과 협회의 계획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실현성없는 이상적이론에 입각하여 선진국가의 예를 찬탁 인구:간호원, 의사:간호원의 비례를 들어 수립한 계획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간호원부족론이 대두되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나는 먼저 결론부터 말해서 간호원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간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교육기관의 증설, 정원의 증원등으로 간호교육의 질적저하

를 우려하게 하였고 최근 50여개 교육기관에서 매년 약 2,500여 졸업생을 내고있고 금년에는 국가시험 합격자가 2,752명인데 지금까지 취업률은 약 60%라는 전제로서 간호교육기관 당국에서는 졸업생 취업문제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국의 기관과 자비결연관계를 맺는중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966년부터 양성하기 시작한 간호보조원 수는 20,000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년 10,000명에 가까운 수가 배출되어 이들의 취업이 문제되고 있어 72년도에는 의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단서까지 마련하여 간호계의 분노를 사제한 사실이 일어났던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 간호원을 필요로하고 있는 기관부터 참고해 보기로 하겠다.

〈表 1〉 지역별, 분야별 기관수 및 간호원수요수

지역별	종별	인		상	계	부					건		계	
		병	원			간호원	의	원	간호원	보	진	소		간호원
서	울	74	2,200	2,133		9	93				173			11
부	산	38	465	553		6	23				71			8
강	원	25	164	182		19	38	90			46	67	31	21
경	기	24	269	520		25	38	177			(45)	(63)	(32)	27
충	북	5	29	151		12	13	96			40	72	15	14
											(38)	(70)	(55)	

충남	남	13	122	330			17	64 (55)	165		56	123 (121)	38 (83)	19
충남	북	12	128	212			16	28 (22)	149		59 (57)	111 (110)	38 (72)	18
충남	남	23	264	402			26	44 (29)	212		157 (154)	59 (124)	30	28
충남	북	33	356	596			33	48 (33)	230		129 (125)	170 (165)	53 (112)	35
충남	남	16	68	286			26	52 (23)	212		90 (88)	157 (146)	23 (17)	28
충남	주	3	7	37			3	4 (2)	11		10	12	(12)	5
충남	전		600											
충남	계	266	4,672	5,402	5,402	9,474		445 (346)	1,342		830 (813)	1,000 (964)		214 2,489 (2,387)

※ ( )속은 간호보조원

<표 2> 전국 시·도별 교육기관수 및 양호교사 교련교사 분포상황 (1973. 12. 31. 현재)

도별	기관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수	특수학교수	공립학교수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기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계	양호교사		교련교사
									중	고	기	고				정원(현원)	면허자격	
서울	울	232	176	141	166	9	20	57	3	27	4	9	844	369 (391)			51	
부산	산	106	71	56	33	3	14	14		5	4	3	309	26			42	
경기	기	704	227	132	77	4	2	31	5	12	24	15	1,233	56 (33)	27 (6)			
강원	원	634	141	74	41	1		21		4	3	2	921	57 (29)			28	
충북	북	389	100	44	15	3		7					558	53 (43)	23 (20)		8	
충남	남	647	194	87	41	4		22	1	7	5	6	1,014	80 (46)			8	
전북	북	589	171	87	14	3	1	26	2	4	5	4	906	101 (120)	91 (29)		29	
전남	남	976	261	106	38	3		27	2	2	4	11	1,423	133 (77)	56 (7)		32	
경북	북	1,015	294	91	70	8	1	34	26	12	9	6	1,566	150 (136)	128 (8)		40	
경남	남	867	245	114	46	2	2	23	1	1	3	11	1,308	116 (112)	85 (27)		22	
제주	주	110	35	22	7	1		2					177	7			6	
충남	계	6,269	1,915	954	548	41	40	264	40	74	61	53	10,259	1,148 (1,076)	794 (282)		266	

<표 3> 기 타

지역별	종별	교육기관		기타	산업장(은행의부실)
		기관	인원		
서울	울	13	123	25	110
부산	산	5	20	10	20
강원	원	3	10	5	10
경기	기	3	16	5	10
충북	북	1	7	5	5
충남	남	3	10	5	5
전북	북	3	19	5	5
전남	남	7	32	5	5
경북	북	7	40	10	10
경남	남	3	9	5	5
제주	주	1	3		

군	진	1	11	
계	50	300	80	180

이상 기관(표4)에서 소요되는 간호원수는 14,001명인데 그중 개인의원 5,402명은 두자격자를 자격보조원으로 데치시키는 문제도 어려우니 논할 필요조차 없고 제하면 국내소요수는 8,662가 된다.

그런데 3월말 현재 간호원 면허소지자수는 2,540여명으로 이중 일할수 있는 연령층인 45세 미만이 21,457로 99%가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表 4>

국 내 수 요 수

분	야	명	현 정 원	현 원	미	비	고
입	병	상	9,474	4,072	8,400	의도법에 준한수 5:2, 30:1 개인의원 입원환자 5명이상은 R.N. 본다.	
		원	(4,072)		(7,970)		
		원	(5,402)		(430)		
보	보	건	1,759	1,660	4,443		
		간	(445)		(445)		
		호	(813)		(813)		
		제	(287)		(287)		
기	산	업	80	80	100		
		장	180	180	200		
학	교	보	1,148	794	1,547		예산상정원
		사	266	266	500		
교	관	진	600	600	1,000		
		관	503	300	500		
계			14,001	7,952	16,690		

해 외 진 출 상 황

1973. 7월 31일

나라별	미	국	카	나	다	서	독	스	위	스	오	스트리아	계
진출수		2,465		203		3,414		14		20		6,116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취업자 중에는 50세이상층도 많이 활약하고 있다. 취업가능인력 약 21,500중 국내소요수 8,662, 해외취업자 약 6,000 여명을 제하면 약 7,000의 유력자원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가진 간호인력자원이 잠재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별한 행정당국의 조치로 간호원의 수요량을 늘이기전에는 당장 8,000여명의 취업자를 제하고도 7,000여의 간호인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간호원 부족, 부족하니 이는 무엇을 뜻함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단계로도 간호원은 부족하지 않거니와 이상적으로 간호원의 수요수를 계산하였을때도 별표 4에서 보는바와같이 16,690, 해외취업자 6,000으로 보았을때 그 수요수는 22,690이 된다. 그러나 국가실정으로 보아 16,690명의 정원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2~3년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 내다보고 매년 50개 간호교육기관에서 3,000여명의 자원이 배출되므로 부족하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16,690명 이라는 숫자속에는

1,342개 "보건의소에도 2명씩 배치한 것이다.

본회에서는 72년도 총회 주제를 "국민보건의 향상은 지역사회간호로"라고 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명감을 다짐하였고 금년도 5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새시대를 향한 간호"라는 주제로 무간호존해소를 다짐했다. 이는 즉 전국 1,342개 보건의소에 간호원을 파견하는 문제인데 무간호존을 해소하고 싶고 지역사회간호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싶지만 행정적 뒷받침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니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처사를 기다릴 수 밖에 도리가 없다.

온저테가 새마을정신으로 새마을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가 내어놓은 "무간호존해소"가 공념불이 되지 않기위해 너도나도 참여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이 사업을 위해 당국이 확보하려는 예산이 통과되고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므로서 간호원수급계획의 차질이 없이 실천되었을때 건강한 사회복지국가가 하루 속히 이룩될 것을 확신한다.